

# 고속도 휴게소 '과속방지' 대책 마련한다

### 경찰, 전남 21곳 순차적 시설 보완 진입로 바닥 잘 보이는 색깔로 교체 과속 카메라 설치·안전요원 배치 서행 표지판 등 안전시설 대폭 확충

경찰이 전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외에서 차량이 감속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불편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휴게소 주변 안전시설도 보완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사망 사고(광주일보 1월2일자 6면)와 관련, 휴

게소 진입 차량의 과속 예방을 위해 과속 카메라를 진입로에 설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방면 곡성휴게소에서 이모(여·53)씨의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용자들을 치어 손모(40)씨와 손씨 동생(33)이 숨지고 손씨 딸(21)과 아들(12), 이씨의 동승자 이모(50)씨 등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하지만 전남지역 21개 모든 휴게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기로 했다. 부족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전남지역 21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제

한속도(40km/h)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10개 휴게소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감속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곡성휴게소의 경우 진입로 입구나 감속차로 시작지점 등에 '제한속도표지판'이나 운전자들에게 서행할 것을 알려주는 '천천히' 표지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휴게소 진입로 바닥을 잘 보이는 색깔로 바꾸는 한편, 차선도 울퉁불퉁한 '돌출형 차선'으로 개선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다.

경찰은 또 휴게소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 현재, 전남지역 휴게소 중 여산(상행)·곡성(상행)·섬진강(부산 방면)·황전(완주 방면)·보성(영암 방면) 휴게소 이외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모든 휴게소에 운전자들의 서행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속호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경찰은 최근 휴게소 내 사망 사고와 관련, 지난 201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1일 동승자와 함께 운전연습 겸 순천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나섰다가, 휴게소 진입 과정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페달을 밟는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대량유출 주민등록번호 안행부, 제도 개편 검토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 안전행정부 검토에 착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현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든, 앞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번호를 금융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입춘대길' 24절기 중 첫째 절기 입춘(立春)인 4일 광주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자미갤러리에서 '캘리와 포토가 만나는 날' 동아리 회원들이 중흥어린집 원생들과 함께 입춘방을 쓰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5·18비하 게시물 포털서 사라지나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지역·성별 모욕 게시물 삭제 가능"

지역민들 "늦었지만 다행, 문제 사이트 아예 폐쇄해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민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

지만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이트는 아예 폐쇄해야한다는 반응이다. KISO는 4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을 통해 지역·장예·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욕·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 5·18 비하 사이트인 '일베' 등은 KISO의 회원사가 아

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살펴 본 일베에는 여전히 5·18 비하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아이디 '혁신한국'은 '뭐? 5·18 때 간첩이 안왔다, 그건 당연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간첩은 이미 5·18 이전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모든 전라도 사람은 불순분자"라며 "5·18은 무장반란 폭동, 5·18폭도들은 모조리 사형시키자"라고 비하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8시 04분 달출 10시 37분 달몰 1시 1분

**체감온도 뚝**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 부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7/2℃
목포	구름많음	-6/1℃
여수	구름많음	-4/3℃
나주	구름많음	-8/2℃
완도	구름많음	-5/2℃
구례	구름많음	-7/3℃
강진	구름많음	-6/3℃
해남	구름많음	-6/2℃
장흥	구름많음	-6/3℃
순천	구름많음	-5/4℃
영광	구름많음	-7/0℃
진도	구름많음	-4/2℃
전주	구름많음	-8/1℃
군산	구름많음	-8/0℃
남원	구름많음	-10/0℃
홍산도	구름많음	-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4/4	-1/8	0/6	-3/4	-4/4	-4/4

## 5060세대 10명 중 7명 "황혼 이혼 공감"

이른바 '신(新) 중년층'으로 불리는 50~60대 10명 중 7명이 최근 급증하는 황혼 이혼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니어 전문 웹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한길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4~20일 전국 50~60대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50~60대 정체성 및 성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라이프 창간 기념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 가량이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이성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이 넘었다. 특히 '평범한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이는 70%가 넘었다. 이들은 이성 친구가 생기면 다양한 문화와 여가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목포대 '최다 헌혈기관'

작년 교직원·학생 914명

목포대가 광주·전남권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헌혈 기관으로 드러났다. 4일 목포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이 밝힌 지난해 헌혈 인구(20만5764명) 가운데 교직원과 학생 등 914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31사단 신병교육대(2342명)를 제외한 광주·전남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헌혈한 기록이다. 다음으로는 광주 진흥회 803명, 해남군 467명 등이다. /채희중기자 chae@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주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센터 080-234-6588